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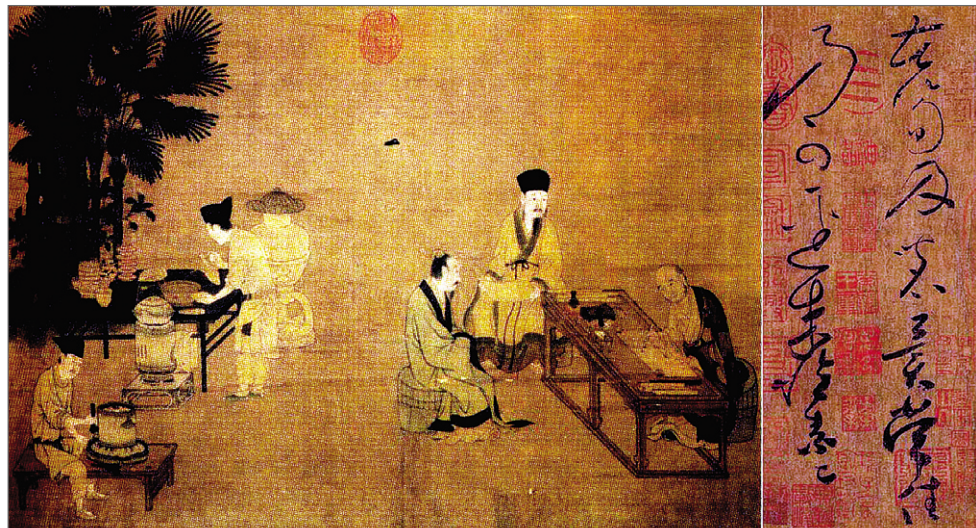
옛 그림 속 **차** 이야기

연다도

명차향에 취해 회소 스님 글쓰니...

당나라 서법의 대가 회소(懷素, 737~799)는 초서체를 잘 써 '초성(草聖)'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자유분방한 승려였던 그는 술이나 고기를 가려 먹지는 않았으나 한 편으로 차는 매우 좋아했던 것 같다.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연다도(攄茶圖)'는 남송시대 화원화가 유송년이 그린 작품으로 차를 기다리며 글을 쓰는 회소가 등장한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쓰고 있는 승려 회소가 보이고 옆에는 당대 시인이자 벗이었던 대숙륜(戴叔倫)과 전기(錢起)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모

팔에 모아 붓 끝에 실었다. 빠르고 유연하게 써내려간 14자의 초서는 흰 비단 위에 담긴 글자이지만 전해지는 것은 뜻만이 아니라 회소의 마음이며 지극히 미적인 형상 그 자체다. 작품에는 많은 감상인과 소장인이 적혀있어 이후,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내역도 알 수 있다. 그 중 북송 휘종대의 연호인 '선화'의 감상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송대에는 황실에도 소장됐으니 그 명성 때문에 회소의 일화도 그림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왼쪽은 유송년의 '연다도', 남송, 비단위에 채색, 44.2x61.9cm,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오른쪽은 회소 <고순첩>, 비단위에 글씨, 25.1x12.0cm, 상해박물관 소장.

두 시를 지어 회소의 서예를 칭찬한 적이 있는 지우(知友)들로 이들의 만남은 당대 문인들의 아취 있는 사회(詩會)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반라의 승복 차림인 회소는 준비되는 차를 기다리며, 한편으로 팔을 들어 두루마리 위에 글을 쓸고 있다. 시원한 초서의 필체로 <고순첩(苦菊帖)>의 구절이라도 쓰고 있는 것일까. "특별하고 아름다운 고순의 명차가 이에 회소에 게 왔구나(苦菊及茗異常佳, 乃可運來, 懷素上)." 회소의 작품으로 유명한 <고순첩>은 윤필이 둥글게 꺾이면서 글자와 글자사이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 표현하기 어려운 생동감 안에서 굳센 기운을 잃지 않고 있다. 무슨 일로 회소의 붓끝에서 이러한 기운이 펼쳐지게 됐는지 궁금하던 차에 글귀의 뜻을 헤아려본다. 서법이란 '그 통쾌함이 나는 새가 숲을 빠져나올 때 같고 놀란 뱀이 풀 속으로 사라질 때와 같다'고 말하던 회소는 뜻 밖에도 명차를 받고 기쁨에 넘쳐 붓을 휘두르게 된 것일까. <고순첩>의 여운을 느끼며 그림을 다시 바라보면 남다른 감흥이 생겨난다. 명차를 받고 시동에게 차를 준비시키고 회소는 그 차를 마시기 직전의 설렘과 기쁨을 한순간에 발산하지 않고 응축해 오른

화면의 좌측에는 차를 준비하는 두 명의 인물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또한 이색적이다. 앞에 긴 의자에 걸터앉은 인물은 맷줄잡히듯이 자루를 돌리고 있는데, 바로 송대 대표적 다구인 다마(茶磨)이다. 이것으로 차 덩어리를 가루 내어 다말(茶末)을 만들고 있다. 그 뒤로 옆으로 돌아서 있는 인물은 큰 탁자 앞에서 점다(點茶)를 하고 있다. 다완 옆으로는 거품을 내기 위한 다선(茶筴)과 청자다완, 주철다탁, 다말함(茶末盒), 수우(水盂) 등의 다구들이 보인다. 점다를 하는 시동은 뒤편에 있는 연일모양뚜껑의 향아리에서 물을 떠올려 탁자 앞의 화로에서 물을 데우고 이를 병에 담아 지금 사용하고 있다. 화가 유송년은 회소가 <고순첩>을 쓰는 이 순간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화폭 안에는 과거의 일화와 함께 화가가 살았던 송나라의 다법을 묘사해 생생한 시대성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서예와 차의 조화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중국인들의 차에 대한 고차원적인 문화 활동을 대변해주는 역사적인 증점이 돼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 사진이야기

4 송광사 풀방석



천 년 세월이 지나간 절집에 선지식의 이름들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승보(僧寶)사찰 송광사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혜린(慧麟)'이란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송광사 역시 많은 선지식의 이름들이 남아 있지만 지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열여섯 분의 국사(國師) 이야기는 다른 절집과는 표지부터 다른 송광사만의 포트폴리오(portfolio)다.

학인스님들이 법회를 위해 좌복을 나르고 있다. 어른 스님들이 앉는 좌복이다. 그 옛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풀방석에 앉아 깨달음을 얻었다. 연화대(蓮花臺)의 유래가 이 풀방석이다.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 부른다. 학인스님들의 어깨 위에 놓인 저 좌복은 언젠가 학인스님들도 앉아야 할 풀방석이 아닐까.

옛 **관화**의 세계

징관 스님이 소를 짓다 징관조소(澄觀造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징관이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을 때 자신의 몸이 용으로 변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을 관각한 작품이다. 화엄종 제4조로 추앙 받고 있는 청량국사(淸涼國師) 징관(澄觀, 738~839)은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로, 성씨는 하후(夏侯), 자는 대후(大休), 시호는 청량이며,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소흥현 출신이다. 아홉 살에 체진 대사 문하에서 출가했으며, 화엄을 전해준 스승 법선 화상으로 부터 '법계는 모두 너에게 있다'고 인가를 받았다. 화엄뿐만 아니라 계율을 익히고, 열 가지의 서원을 세우는 등 철저한 수행으로, 내외전은 물론 인도의 고전에도 능통했으며, 대흥선사에서 진행된 역경장에 참가해 6년간 경전 77부를 번역하는데 기여했다. 당 태종 때는 <화엄경>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 가운데 '문수보살이 오정(五頂)을 비취 본다'는 구절을 알고자 화엄성지 산서성 오대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수행했다. 오대산(五臺山) 대화엄사(大華嚴寺)에 머물면서 대승참법(大乘懺法: 대승경전을 읽어 죄를 참회하는 수행방법)을 닦았으며, 또 <화엄경>을 강의하고 <화엄경

소>를 지었다. 저서는 총 42종 600여 권 가운데 현재 21종 400여 권이 남아있다. 제자는 100여 명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종밀(宗密)·승예(僧睿)·보인(寶印)·적광(寂光) 네 사람은 '징관 문하의 네 철인(門下四哲)'이라 불린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관이 소를 짓고 난 후, 어느 날 꿈에 자기 몸이 용으로 변해서 머리는 남대에서 쳐들고 꼬리는 산복에 서려 하늘을 움켜잡고 비늘과 같기와 빛나는 눈으로 헤아리는 작은 용으로 화해서 푸른 하늘에 뛰어올라 치솟았다가 깔려 흩어지면서 더 나은 꿈을 꿨다. 이것은 아마도 교법의 지류가 나눠져 유포되는 상을 취한 듯했다. 또한 소를 지을 때 법당 앞 못에 다섯 가지를 지닌 합환 연화가 돌아났고, 한 꽃에 모두 세 개의 마디가 생겨났다. 그 후 장안에 이르러 되자 조정의 신하들이 그에게 귀의했는데, 제(濟)의 상국 위태상, 무원형, 정인, 이길보 등이 모두 그의 높은 도품을 사모하고 함께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징관의 실천적 화엄사상은 출·재가를 망라한 제자들에게 이어져 징관 스님은 송대 이후 화엄종의 제 4조로 추앙받게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 산은 그대로인데

산은 그대로인데
내가 좋다 그린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멋 있다고 말한다

꽃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꽃이 피었다고 말한다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푸르다고 말한다

말 없이 묵묵한
산, 나무, 꽃처럼 된다는 것
찾아볼 일이다.

-육관공, 시집 <푸른 숲결의 높낮이>에서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징관조소(澄觀造疏)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